

한상진 교수의 핵심교양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업 시간, 책, 심지어 신문의 헤드라인과 같은 지극히 일상적인 부분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인권’을 수없이 읽고 듣는다. 그렇지만 누군가 우리에게 ‘인권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을 던질 경우, 대답하기에 앞서 막연한 생각이 드는 게 사실이다.

한상진 교수의 핵심교양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는 바로 이렇게 추상적으로만 인식되고 있는 ‘인권’이라는 개념의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업이다. 이 수업은 현대 사회의 글로벌 스탠다드(global standard)로 통용되는 인권의 역사적 형성 과정을 바탕으로 인권의 구성 요소와 문화적 기반 등을 소개함으로써 실제 생활에서의 인권의 가치와 중요성을 이해하고 인권친화적인 가치관과 생활 방식을 확립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개념으로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 살아 있는 가치로서의 인권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맥락에서 현실적인 인권의 신장을 추구하는 다양한 NGO들의 역할과 세계시민사회의 추세를 검토하는 과정도 강의 내용에 포함된다.

수업은 일반적으로 첫 시간에는 주 교재에 대한 강의를, 그 다음 시간에는 각 주제에 맞는 영상 자료의 관람과 학생들 간의 집중적인 토론을 통해 주요 쟁점에 대한 이해를 돕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무엇보다 이론과 실천을 견미하기 위한 노력이 돋보인다는 점이 학생들이 꼽는 이 수업의 가장 큰 장점이다. 자칫 이론적인 문제에만 그칠 수 있는 인권에 대한 담론을 현실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학생들에게 신선하게 다가온다.

우선 학기 중 학생들에게 NGO 방문 기회가 주어지는데 이는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업이 이론에만 집착하지 않고 인권의 현실에 대한 감각을 길러주는 수업이라는 사실을 보여준다. 학생들은 평소에 자신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NGO를 3순위까지 선택하고 같은 곳의 방문을 원하는 학생들끼리 팀을 이뤄 NGO를 직접 방문해야 한다. 이렇게 NGO 방문이 무사히 끝나면 조원들이 모여 조별 NGO 방문 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이 보고서에는 방문한 NGO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인터뷰 내용,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조원들 간의 토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NGO 방문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은 매우 뜨겁다. 이 수업을 듣는 김은영(사회 05) 학생은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업을 통해 흔하게 경험해 볼 수 없는 NGO 방문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한다. “물론 보고서를 제출하려면 힘들기도 하지만, 그래도 NGO를 방문했던 날을 떠올려보면 역시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다”는 학생의 말에서는 새로운 경험에 대한 만족감이 그대로 드러나 있다.

또한 지난 학기의 경우 이 수업의 학생들은 노동기본권에 대한 강의와 실업 및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토론을 거친 후 현실을 체험하고자 하는 취지로 가리봉동에 위치한 외국인 이주노동자의 집을 직접 방문하기도 했다. 외국인 이주노동자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 김해성 목사의 강연과 함께 그 곳에서의 현장 학습을 통해 학생들은 한국 사회에서의 인권의 현실을 직접 보고 듣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



학생들이 현장학습을 다녀온 뒤 인터넷 게시판에 올린 소감문에는 “이렇게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이 열악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 미처 알지 못했다”, “막연하게 이해해 왔던 인권의 의미와 인권 침해의 심각성을 비로소 깨달은 것 같다”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는 강의실 밖에서의 경험은 단순한 지식의 주입보다 훨씬 더 강렬한 인상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반영하고 있다.

한편 이 수업은 핵심교양답게 철저한 글쓰기 지도를 해오고 있다. 학생들이 자신의 삶에 있어서 ‘자기 결정권’을 발휘한 사례를 바탕으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수강생들 전원이 조교들과의 개인 면담 시간을 가진다. 면담 시간에는 처음 제출한 중간 보고서에 대한 조교들의 꼼꼼한 코멘트가 주어진다. 더불어 지적한 부분을 토대로 완벽한 보고서를 완성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향으로 고쳐나가면 좋겠다는 조언까지 받을 수 있다. 면담 시간을 통해 얻은 충고를 생각하면서 다시 중간 보고서를 제출하면 글쓰기 방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많은 향상이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최종 채점이 되는 것이다. 박병규(경영 03) 학생은 “지금까지 들어 본 핵심교양 강좌 중 가장 글쓰기 지도에 열성을 기울이는 것 같다. 조교 분들과의 개인면담도 리포트를 쓰는 데 무척 도움이 많이 된다. 핵심교양 본래의 취지를 잘 살리고 있는 수업인 것 같다”며 만족스러움을 나타냈다.

또한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업은 다양한 종류의 인권 현실을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외부 연사들의 초빙을 통해 이론에만 머물지 않고 현실을 직시하고자 하는 강의 목표를 잘 살리고 있다. 지난 학기의 경우 북한 인권 문제 해결을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 오신 외국인 전문가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각계각층에서 활동하고 계신 인권 문제 전문가들께서 직접 강의를 진행한 바 있다.

노동권, 의료권, 정치·시민적 권리, 경제적 권리, 문화적 권리 등 세분화된 인권의 카테고리에 대해 매 시간 깊이 있는 강의와 자유로운 질의응답이 이어진다.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의 강의를 수업 시간 내내 들을 수 있었다는 건 학생들에게 새로운 경험이었다. 이지은(사회 05)학생은 “이러한 시리즈 강의를 통해 점차적으로 인권이라는 개념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시야가 길러진 것 같다”고 말한다. 한 덩어리로 여겼던 추상적인 인권의 개념을 조각조각 나눠서 볼 수 있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다는 것이다.

좋은 수업은 커리큘럼이 충실하고 평가가 공정하고 정확하며 학생들로 하여금 많은 기회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어야 한다. ‘인권, NGO, 세계시민사회’ 수업은 바로 그 모든 기준을 충분히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수업이다. 인권에 대해 보다 심도 있게 이해하고 싶은 학생, 직접 NGO를 방문하여 NGO의 기능과 역할을 알고 싶은 학생, 다양한 종류의 인권을 공부하고 그 현실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을 기르고 싶은 학생이라면 이 수업을 적극 추천하고 싶다. ☑

☑ 글 / 홍정민 ☑